

2018 농식품 해외시장 맞춤형조사

No. 1805-10

품 목 : 인스턴트커피(Instant Coffee)

국 가 : 러시아 연방(Russia Federation)

Contents

I. 국가 정보 및 시장통계	3
1. 수출환경 및 경제지표	5
2. 식품 산업현황	8
3. 수출입통계	12
II. 시장 트렌드	21
1. 소비 트렌드	23
2. 제품 트렌드	24
3. 유통 트렌드	27
III. 통관 및 제도	30
1. 통관 및 검역	33
2. 인증정보	40
3. 라벨링	45
4. 위생요건	47



I. 국가 정보 및 시장통계

1. 수출환경 및 경제지표
2. 식품 산업현황
3. 수출입통계

러시아 국가 개요

러시아는 서쪽 발트해를 시작으로 동쪽으로는 태평양에 이르기까지 총 11개의 타임존에 걸쳐있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보유한 국가임

러시아인(77.7%), 타타르인(3.7%), 우크라이나인(1.4%)을 비롯한 기타 150여 개의 소수민족으로 인구가 구성되어 있으며 부족 간 정치 및 사회, 경제적 차이가 존재함

러시아는 세계적으로 석유 생산량이 가장 많은 산유국 중 하나이며, 천연가스 매장량도 많아 천연자원을 활용한 산업이 발달함

한편, 불안정한 경제환경과 경제개혁 결여로 외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유가 하락과 더불어 보수적인 관료주의, 팽배한 부정부패, 미흡한 법제도 등과 같은 대내외적 문제로 인해 장기 경기 침체 발생

천연자원에 편중된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고 산업 다각화를 촉진해야 함

주요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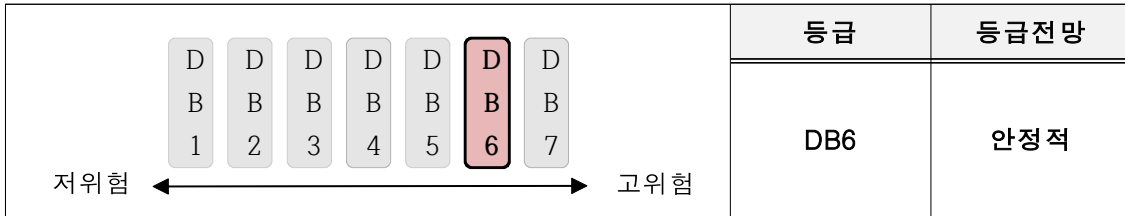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명: 러시아 연방
(Russian Federation) ▶ 수도: 모스크바 ▶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Vladimir Putin)
(2012.5.~(4기 취임)) ▶ 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억4700만명(2017) - 24세 미만: 26.58%(2017) - 도시 인구: 74.2%(2017) ▶ 면적: 17,124,442k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1위 (한반도의 77.6배, 미국의 1.8배) ▶ 공식어: 러시아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도시: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이르쿠츠크, 노보시비르스크, 블라디보스토크 등 ▶ 종교: 러시아 정교 ▶ GDP: 88조 1,770억 루블(2017) ▶ 1인당 GDP: 10,710 US달러(2017) ▶ 경제성장률: 1.5%(2017) ▶ 주력산업: 천연가스, 철수, 화학, 금속, 석탄, 방산, 우주항공, 핵에너지 ▶ 화폐단위: 루블(RUB) ▶ 인터넷 보급률: 76.4%(2018) |
|---|--|



자료: 「Country Insight Report Russian Federation July 2018」, Dun & Bradstreet, 2018.6.8
Russia Federation Federal State Statistics Service

1. 수출환경 및 경제지표

□ 국가 위험등급 및 전망)



자료: 「Country Insight Report Russian Federation July 2018」, Dun & Bradstreet, 2018.6.8

□ 주요 전망

구분	세부내용
긍정적	- 동유럽권에서 가장 큰 시장을 보유 - 러시아 경제연합을 결성하여 역내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극동개발의 필요성에 따라 아시아와의 협력관계 모색 - 2014년 시작된 제조업 육성정책이 2018년에도 지속됨에 따라 수입의존도가 높은 기계 산업 및 기자재 등의 수요 확대 및 투자기회 증가
부정적	- 고령화 문제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 미칠 것으로 전망 - 천연자원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취약한 경제구조 - 국가 경제에 관한 정부의 비효율적 정책 운영으로 인한 외자 유치 실패 - 2018년 4월 6일 미국의 대 러시아 추가 제재 발표, EU의 對 러시아 경제 제재 6개월 연장

자료: 「Country Insight Snapshot Russia July 2018」, Dun & Bradstreet, 2018.6.8

1) D&B의 'DB' 위험 지표는 한 국가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위험에 대한 상대적인 국가 간 평가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국가 차원의 요인들이 2년의 기간에 걸쳐 수출 결제 및 투자 수익에 대한 예측가능성에 미치는 위험을 나타냄. 'DB' 위험 지표는 국가별 위험 카테고리로서 다음의 4가지 종합 지수로 구성됨. ▲ 정치위험, ▲ 상업위험, ▲ 거시경제위험, ▲ 외부위험. 첫째, 정치위험은 국내외 안보 상황, 정책 역량 및 일관성, 국가가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타 요인을 포함. 둘째, 상업위험은 계약의 신성함, 사법능력, 규제투명성, 체제의 부패정도, 비즈니스 환경이 상업 거래 이행을 용이하게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타 요인을 포함. 셋째, 거시경제위험은 물가 상승률, 재정적자, 통화공급증가, 국가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와 비즈니스 기회에 상응하는 확장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거시경제 요인을 포함함. 넷째, 외부위험은 경상 수지, 자본 흐름, 외환 보유고, 대외채무 규모, 무역 및 대외투자부채를 충당하기에 충분한 외화를 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을 포함.

자료: D&B Country Risk Indicator, Dun & Bradstreet

□ 주요 거시경제 지표

-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2016년 12월 7.5%까지 인하하였으며, 그 이후 물가상승률 둔화에 따라 2017년 3월 0.25%의 추가 인하 단행(7.25%)
 - 신용 및 부동산담보대출 자격 요건이 완화되어 가처분소득이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소비 활동도 촉진될 것으로 예측
 - 2018년 1분기, 러시아의 국제등급이 ‘안정적’ 에서 ‘긍정적’ 으로 상향 조정되어 외자 투자유치에 대한 발판 마련²⁾
 - 내수 자본의 양적 팽창으로 루블화 약세가 우려되나 변동환율제와 외환보유량이 완충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러시아의 경상 수지 흑자 규모는 전 분기 222억 달러에서 2018년 1분기 288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
 - 최근 유가의 소폭 상승으로 인해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수입은 내수 수요와 투자 규모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됨
 - 3년 연속 위축됐던 기업들의 자본투자가 재개되고 있으며 무역거래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
 - 수출의 경우, 유가가 평년보다 낮아지거나 수출 산업 다각화가 실패한다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경상 수지 흑자는 전년 보다 하락하여 국내총생산(GDP)의 2.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표 1.1 주요 거시경제 지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f	2019f	2020f	2021f	2022f
경상수지	4.9	1.9	2.2	2.1	2.5	2.9	2.9	2.9
실업률	5.6	5.5	5.2	4.8	4.6	4.6	4.5	4.5
재정수지	-3.4	-3.7	-2.1	-1.5	-1.2	-1.0	-0.7	-0.5
물가상승률	15.5	7.0	3.7	2.8	3.2	3.6	4.0	4.0
실질GDP성장률	-2.8	-0.1	1.5	1.7	1.7	1.5	1.5	1.6

자료: 「Country Insight Snapshot Russia July 2018」, Dun & Bradstreet, 2018.6.8

2) Moody's (2018.01.25)

□ 무역통상 환경

- 러시아는 내수시장 및 국제무역 규모, 풍부한 지하자원을 고려할 때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가이나 저평가 되는 경향이 있음
 - 러시아는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 국가 간 관세 혹은 비관세장벽이 존재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한 의지도 부족함
 - 특정 산업군에서 외국인 소유권을 제한하고 있어 외자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음. 일례로, 무분별한 외국인 투자를 방지하고 국가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러시아 SSL(Strategic Sectors Law)은 45개 전략 안을 발표했으며 크게 천연자원, 국방, 언론, 독점산업군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를 강화함³⁾
- 국가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큰 편으로, 정부의 관리와 통제로 인해 시장경제 발달 지체
 - 특정 산업 분야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유화 주도한 결과 국영기업 또는 공기업(SOE, State-owned enterprise)이 시장 장악
- 세계적인 경제 침체, 유가 하락, 루블화 가치 하락, 자국의 경제회복 정세로 인해 러시아의 경제위기가 야기됨
 - 러시아 정부 당국은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금융체계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적 및 물적 자원을 갖춘 것으로 자평
 - 중앙은행은 루블화 안정화를 위해 통화량을 조절하는 한편, 외환보유액을 약 3,561억 달러로 유지하여 대외채무에 대비함

□ 위험 및 기회요소

구 분	세 부 내 용
단기 경제전망	<p>경기 회복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GDP성장률은 1분기(1월~3월)에 연평균 1.3% 증가하여 2017년 4분기 대비 1.0% 상승할 것으로 전망 (2017년 연평균 실질GDP성장률은 연평균 1.5%) ▶ 경제 성장의 주요 요인은 내수 경제의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분기 산업생산량은 월평균 1.8%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3)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2017.07.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탄 및 천연가스 생산량은 각각 연평균 9.8%, 15.3% 증가하는 반면 석유 생산량은 연평균 0.4% 감소할 전망
장기 경제전망	<p>비대칭적인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 의지 부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자원 의존형 경제 성장모델로 인한 산업별 성장 불균형 및 미래산업에 대한 대비 부족 ▶ 사회·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개선 의지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화, 노동시장의 비유연성, 산업자본의 대도시 편중, 미흡한 제도적 장치 및 재산권 보호, 부정부패 등과 같은 사회경제문제 대두 •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은 지배층에 집중된 권력과 자본 증식에 따른 것으로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려울 전망 • 그 결과, 장기적으로 연평균 1.0%~1.2% 정도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뉴노멀시대에 따른 유가 하락 현상이 심화될 경우 유가수익으로 얻는 경제적 효과가 더 이상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을 상쇄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정치불안 위험	<p>정치적 긴장감 고조, 외교적 고립 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우크라이나 군사 개입, 지속적인 시리아 침공, 미국 대선개입설에 따른 정치적 갈등 현상이 연쇄적 발생 • 서방 국가들과의 우호적 관계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미국의 비정부기구인 Freedom House의 2017년 조사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의 정부는 언론탄압을 통해 민주사회를 억압하고 있음⁴⁾. 실제로, 2017년 11월에 입안된 '외신등록법(FARA,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은 외신 등록을 의무화함으로써 언론에 대한 국가의 통제 범위를 확대하려는 의도로 파악됨

자료: 「Country Insight Snapshot Russia July 2018」, Dun & Bradstreet, 2018.6.8.

2. 식품산업 현황

□ 러시아 식품산업 현황

-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 후 2년도 채 되지 않은 2014년 우크라이나 위기에 봉착했으며, 이러한 외교적 갈등은 경제 정책의 방향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침
- 푸틴 정부의 'New Russia' 비전은 제국주의와 반미주의(Anti-Americanism)를 핵심 이데올로기로 하며 러시아의 사회, 경제 및 문화를 움직이는 구심점으로 작용⁵⁾

4) Freedomhouse (2018.4.11.)

5) Food Policy in Russia (2016. 12)

- 외교 관계의 단절 속에서 러시아 정부는 해외무역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고 자급 자족 의지를 강화함. 그 결과 식품산업 지원 예산이 증가하고 적극적인 정부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로 식품 생산량 증가
- 미국과 우호 관계에 있는 국가들과 무역을 지양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EU와의 무역거래량을 줄이고 브라질, 칠레 중국과의 교역량을 증가시킴
- 2015년 푸틴 대통령은 식품안정장치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거래가 금지된 국가로부터의 식품 밀수 규제를 강화하는 법령 발표
- o 식품산업에 관한 무역법의 규제 강화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식품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2016년 7월 개정된 무역법은 공급자가 소매업자에게 지불한 수수료를 최종구매액 대비 5% 이하로 제한하고, 대금 지급 기간을 기존법보다 5일 정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⁶⁾

□ 러시아 식품소매 시장 현황

- o 2017년 식품산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4.4% 증가한 14,359십억 루블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2000년 1,093십억 루블 대비 연평균 16.4% 증가한 수치
- o 2017년 상반기 식품산업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8.3% 수준이었으나, 하반기 매출액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로는 증가함
- o 러시아의 식품 소매 시장은 ① 도시인구 증가, ② 할인점, 슈퍼마켓, 하이퍼마켓, 편의점 등 현대식품소매점의 확대, ③ 러시아 소비자의 서구 브랜드에 대한 관심 증대, ④ 품질 및 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

표 1.3 러시아 총인구 및 도시인구 추이(2013-2017년)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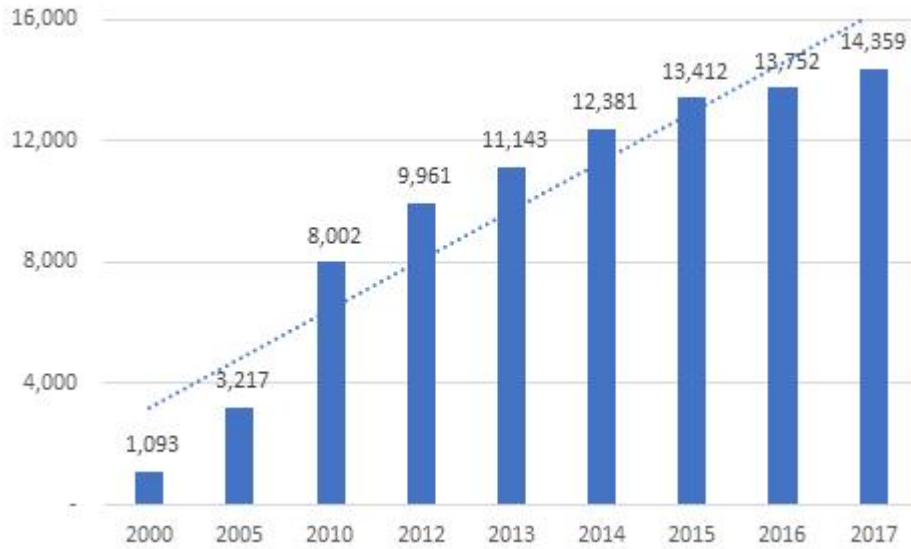
연도	총인구	도시인구	지방인구	도시인구/총인구
2013	142,833	105,483	37,350	73.9%
2014	142,467	105,318	37,149	73.9%
2015	142,099	105,164	36,935	74.0%
2016	141,729	105,022	36,707	74.1%
2017	141,348	104,884	36,464	74.2%

자료: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

6) Official Internet Portal Legal Information

그림 1.1 러시아 식품 소매 매출액 추이(2000-2016년)

(단위: 십억 루블)



자료: Russia Federation Federal State Statistics Service

표 1.4 러시아 식품 소매 매출액 비교

(단위: 십억 루블)

연도	2016년	1분기 (2016)	2분기 (2016)	상반기 (2016)	3분기 (2016)	4분기 (2016)	2017년	연평균 증가율
매출액	13,752	3,275	3,452	6,727	3,670	3,962	14,359	4.4%
전년도 대비 매출 비중	95	97	99.6	98.3	101.9	102.9	100.5	-

자료: Russia Federation Federal State Statistics Service

□ 러시아 식품 소매 유통 현황

- 러시아의 경제위기는 루블화 가치 저하로 인한 원가재 가격 급등 및 최종 소비자가 격 상승을 초래한 바, 타 산업군보다 소비재 제조업에 더욱 심대한 영향을 미침
- 이로 인해 비용 절감 등 효율적 경영구조를 구축한 기업만이 존립할 수 있었던 바, 현대적 유통채널의 점유율이 약 68%까지 상승함 (2017년 기준)⁷⁾

7) McKinsey&Company(2017.09)

- 상위 5개 식품소매업체(Obyedinennye Konditery UK, Mondelez International Inc, Mars Inc, KDV Group, Ferrero Group)는 식품소매기업의 시장점유율 13%에 달하며 2014년~2017년 사이 연평균 3.3% 증가⁸⁾
- 현대식품소매점 중 할인매장의 비중이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타 유형⁹⁾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인구 백만 명 당 112개의 할인매장 수를 기록하여 유럽 국가 중 3위
- 할인매장은 제조업체로부터 전통식품소매점 대비 3%~7% 낮은 가격에 제품을 대량 구매하고 판촉비로 20%~30% 더 많은 비용을 지출
 - 대량으로 구입한 가공식품은 소매업체에 재판매함으로써 차익을 수익으로 남기는 구조
- 2013년 이후 온라인 유통채널의 연평균성장률이 19%에 달하는 바, 이는 유럽 국가의 평균성장률인 7%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
- 지역 중소기업은 초기 시장진입의 판로로 전통식품소매점을 이용, 인지도가 낮은 브랜드가 명성을 쌓을 기회의 장으로 인식됨
- 각 채널별로 소비자가 기대하는 제품 구매 가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므로 이에 대한 가격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러시아 인스턴트커피 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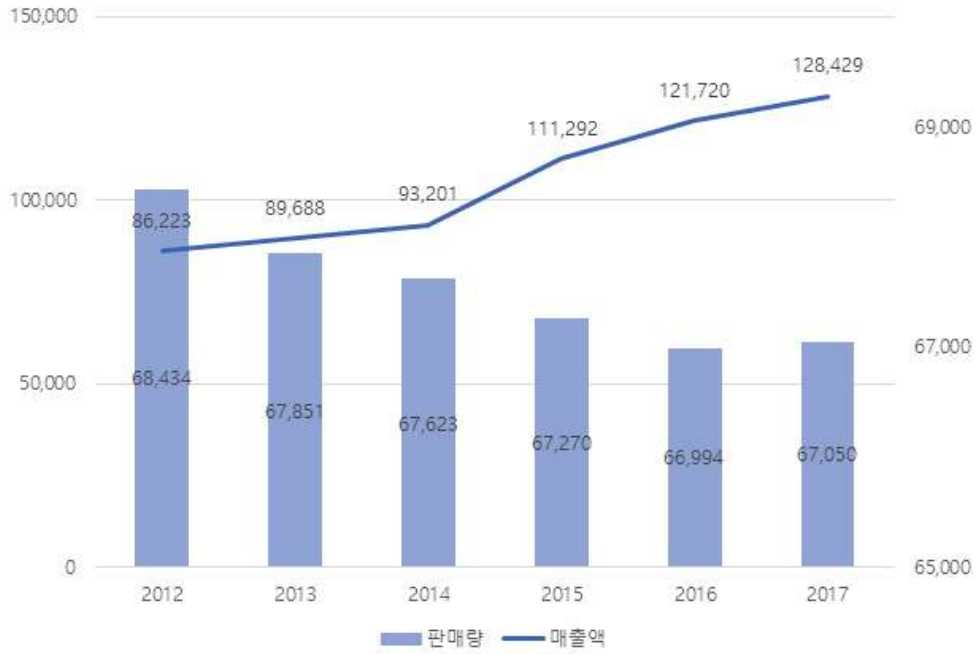
- 2012년 이후, 러시아 인스턴트커피 소매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판매량은 감소하는 추세
 - 2012년~2017년 매출액이 약 86,223백만 루블에서 약 128,429백만 루블로 증가하여 연평균 8.3% 성장했으나 판매량은 약 68,434톤에서 약 67,050톤으로 줄어 연평균 성장률 -0.4% 기록
- 매출액과 판매량 추이가 대비되는 현상은 인스턴트커피의 고급화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됨
 - 소비자가 저가의 인스턴트커피를 소비하던 과거와 달리 고가의 제품으로 소비패턴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

8) Euromonitor International

9) 현대적유통채널은 편의점, 포스코소매점, 하이퍼마켓, 할인매장, 슈퍼마켓으로 구성됨

그림 1.2 러시아 인스턴트커피 소매 매출액 추이(2012~2017년)

(단위: 백만 루블, 톤)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3. 수출입통계

수출입통계		
❖ 인스턴트커피 관련 주요 수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인스턴트커피 수입 규모 약 5,166백만 달러(2017년) • 글로벌 인스턴트커피 수입 비중 세계 1위 러시아 (7.8%)(2017년) • 러시아 인스턴트커피 수입 규모 약 402백만 달러(2017년) • 러시아 인스턴트커피 수입 비중 1위 스위스(54.7%), 2위 폴란드, 3위 독일 순(2017년) • 한국산 인스턴트커피 수출액 약 110백만 달러(2017년) 		
❖ 인스턴트커피 국가별 HS CODE 분류		
국가	HS CODE	품명
한국	2101.11.1000	인스턴트커피
러시아	2101.11.0015	중량이 3kg미만 동결건조 인스턴트커피
❖ 글로벌 인스턴트커피 수입 규모(2017)		
수입국	2017 금액 (US 천달러)	
글로벌	5,165,945	
1	러시아연방	402,304
2	독일	374,876
3	미국	361,839
4	영국	315,944
5	폴란드	248,140
❖ 글로벌 인스턴트 커피 수입 비중(2017)		
❖ 러시아 인스턴트커피 수입 비중 (2017)		
❖ 한국산 인스턴트커피 수출 규모 (2017)		
수출국	2017 금액 (US 천달러)	
글로벌	110,198	
1	일본	19,205
2	이스라엘	18,432
3	러시아연방	13,231
4	중국	12,794
5	호주	8,595

1) 통계분석 기준 설정

□ 인스턴트커피의 통계 기준 설정

- 인스턴트커피의 글로벌 및 러시아 수입 통계와 인스턴트커피의 한국산 수출 통계를 확인하기 위해 HS CODE를 통계 기준으로 설정¹⁰⁾

□ 인스턴트커피의 HS CODE¹¹⁾는 한국 2101.111000 러시아 2101.11.0015로 설정

- 글로벌 수입 규모 파악을 위해 HS CODE 2101.11 러시아 수입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HS CODE 2101.11.0015 한국산 인스턴트커피 수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HS CODE 2101.11.1000을 통계 기준으로 설정

표 1.5 인스턴트 커피 항목별 통계 기준 설정

조사 항목	통계 기준			
글로벌 수입 통계	HS CODE	2101.11	품명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러시아 수입 통계		2101.11.0015		중량이 3kg 미만인 동결건조된 커피 인스턴트
한국산 수출 통계		2101.11.1000		인스턴트 커피

표 1.6 인스턴트 커피 국가별 HS CODE 분류

국가	HS CODE	품명
한국	2101	커피·차·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2101.11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2101.11.1000	인스턴트 커피
러시아	2101	커피·차·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2101.11	커피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2101.11.0015	중량이 3kg미만 동결건조 인스턴트커피

자료: 관세법령정보포털 3.0, 세계 HS 정보시스템

표 1.7 HS CODE 검색 사이트

구분	사이트명	URL
HS CODE	관세법령정보포털 3.0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세계 HS 정보시스템	http://www.customs.go.kr/kcshome/getBuRyuList.po
	러시아 관세청	http://eng.customs.ru/index.php

10) 의뢰 제품의 HS CODE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발간한 '2018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을 조회하거나,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3.0'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음

11) HS CODE는 6자리는 전세계 공통, 7-10번째 숫자는 각 나라마다 다르게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과 러시아는 10자리를 사용하고 있음

2) 글로벌 수입 통계(통계기준: HS CODE 2101.11)

□ 2017년 글로벌 수입 규모 1위 국가는 러시아 연방(7.8%)

- 2017년 글로벌 인스턴트커피 수입 규모는 약 5,174백만 달러로 2013-2017년 연평균 성장률 0.3% 하락
 - 수입액 1위 국가는 러시아 연방으로 약 402백만 달러(비중: 7.8%)를 기록했으며 연평균 0.1% 감소
- 글로벌 인스턴트커피 수입액이 하락하는 추세로 수입액 규모 상위 5개 국 중 독일을 제외한 4개국(러시아, 미국, 영국, 폴란드)의 수입액도 감소
 - 2013년 대비 2017년 독일의 수입액은 약 337백만 달러에서 375백만 달러로 연평균 2.7% 상승
 - 미국의 경우 수입액이 연평균 5.4% 감소하여 2013년 1위 국에서 2017년 3위로 하락
- 2017년 국가별 인스턴트커피 수입 비중은 상위 5개국(러시아연방: 7.8%, 독일: 7.2%, 미국: 7.0%, 영국: 6.1%, 폴란드: 4.8%)이 33.0% 차지함

표 1.8 글로벌 인스턴트 커피 수입 추이(2013-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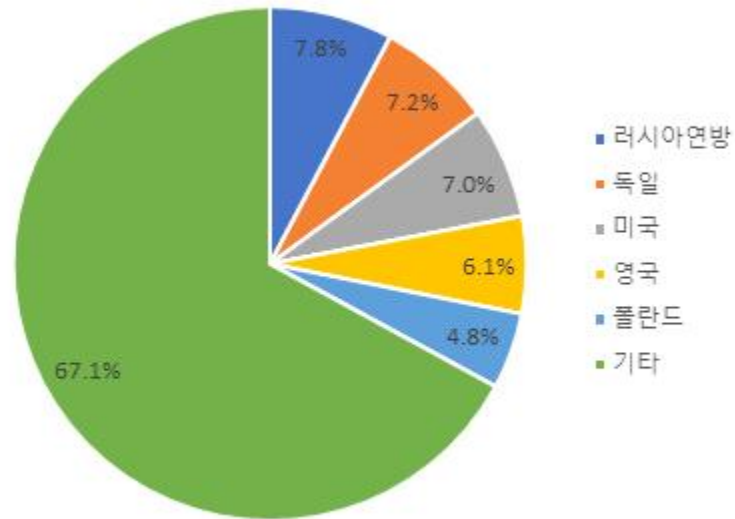
(단위: 천 달러, %)

수입국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가율 ¹²⁾
글로벌	5,235,207	4,884,822	4,586,423	4,513,629	5,173,720	-0.3%
1 러시아연방	403,446	404,886	360,814	392,198	402,304	-0.1%
2 독일	336,878	353,438	343,227	327,320	374,876	2.7%
3 미국	452,666	417,222	370,268	311,356	361,839	-5.4%
4 영국	322,760	314,281	328,337	296,509	315,944	-0.5%
5 폴란드	248,767	248,782	237,337	240,387	248,140	-0.1%

자료: International Trade Centre

12) 연평균증가율 = (최신/최초연도)^{1/(n-1개년)}-1

그림 1.3 글로벌 인스턴트 커피 수입 비중(2017년)



자료: International Trade Centre

3) 러시아 수입 통계(통계기준: HS CODE 2101.11.0015)

□ 러시아의 인스턴트커피 수입 1위국은 스위스로 54.7% 비중

- 2017년 러시아의 인스턴트커피 수입액은 약 52백만 달러로 연평균 약 7.0% 하락
- 인스턴트 커피 수입액 4위국은 한국으로 연평균 31.3% 증가, 2013년 7위에서 2017년 3위로 상승
- 러시아의 인스턴트커피 수입액 1위 국가는 스위스로 2017년 약 29백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연평균 27.6% 성장률을 기록, 전체 수입액의 54.7% 비중을 차지함
 - 뒤를 이어 폴란드가 약 10백만 달러, 독일이 약 5백만 달러 수입액을 기록했으며 각 18.2%, 9.8%의 비중 기록
 - 수입 규모 상위 5개국의 수입 비중이 92.9%로 전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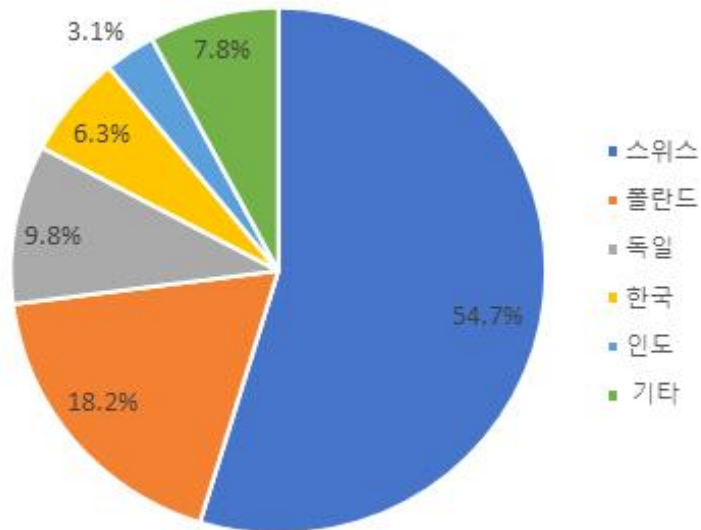
표 1.9 러시아 인스턴트커피 수입 추이(2015-2017년)¹³⁾

(단위: 천 달러, %)

수입상대국	2015	2016	2017	연평균성장률
글로벌	60,477	47,643	52,257	-7.0%
1 스위스	17,560	20,410	28,606	27.6%
2 폴란드	23,528	13,341	9,530	-36.4%
3 독일	6,476	4,860	5,111	-11.2%
4 한국	1,917	2,850	3,304	31.3%
5 인도	2,020	876	1,610	-10.7%

자료: International Trade Centre

그림 1.4 러시아 인스턴트커피 수입 비중(2017년)



자료: International Trade Centre

13) 2013년과 2014년의 데이터는 집계되지 않음

4) 한국산 수출 통계(통계기준: HS CODE 2101.11.1000)

- 한국산 인스턴트커피의 글로벌 수출량은 2016년에, 수출액은 2017년에 각각 최고치를 기록
 - 한국이 수출한 인스턴트커피의 수출량은 2016년에 약 1만 760톤에 도달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수출액 면에서는 2017년 약 110백만 달러가 최고치임
- 한국의 인스턴트커피는 글로벌 수출규모는 2014년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최근 3년(2015-2017년) 동안 증가폭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2014년 한국산 인스턴트커피 수출량은 전년 대비 54.4%, 수출액은 48.5% 증가함
 - 2015년 수출량은 10.8% 증가했으나 수출액이 1.1% 감소하는 등 외부 요인에 쉽게 영향을 받는 수출환경으로 분석됨

표 1.10 한국산 인스턴트 커피 수출 통계(수출대상국: 글로벌)

(단위: kg, 천달러,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중량 (연 증가율)	6,017,566 (0.6)	9,288,662 (54.4)	10,293,902 (10.8)	10,760,859 (4.5)	10,676,288 (△0.8)
금액 (연 증가율)	72,254 (2.2)	107,317 (48.5)	106,136 (△1.1)	102,012 (△3.9)	110,198 (8.0)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한국산 인스턴트커피의 대러시아 수출량은 최근 가파른 상승세
 - 2017년 한국의 對러시아 인스턴트커피의 수출량은 전년 대비 약 31.8% 증가한 약 1,200톤이며 수출액은 35.9% 증가한 약 13백만 달러 기록, 2015년 이후 對러시아 인스턴트커피 수출 규모는 높은 증가 추이를 보임
 - 2015년 對러시아 수출량은 전년 대비 43.9% 증가했으나 수출액은 약 5.0% 하락하는 등 2015년 인스턴트 커피 가격이 매우 불안정했던 것으로 분석됨
 - 최근 5년 간 한국산 인스턴트커피의 對러시아 수출규모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연도별 증감폭 또한 커 불확실성이 높음

표 1.11 한국산 인스턴트 커피 수출 통계(수출대상국: 러시아)

(단위: kg, 천 달러,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중량 (연 증가율)	335,806 (△30.4)	374,755 (11.6)	539,173 (43.9)	911,134 (69.0)	1,201,262 (31.8)
금액 (연 증가율)	5,394 (△27.3)	5,438 (0.8)	5,169 (△4.9)	9,734 (88.3)	13,231 (35.9)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러시아는 한국의 인스턴트커피 수출국 3위로 약 12.0% 비중 차지

- 對러시아 수출액은 2013년 약 5백만 달러에서 2017년 13백만 달러로 증가, 연평균 25.1%의 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한국의 주요 수출국으로 부상
- 2017년 한국의 인스턴트커피 글로벌 수출액은 약 110백만 달러로 연평균 약 11.1% 증가
- 2017년 한국의 인스턴트커피 수출 1위 국가는 일본으로 약 19백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전체 수출액 비중의 17.4%를 차지함
 - 뒤를 이어 이스라엘(16.7%)과 러시아(12.0%)가 높은 수출액 비중을 차지하며 상위 5개국의 수출액 비중이 약 65.6% 차지
 - 일본의 경우 수출액 규모가 2013년 약 4백만 달러에서 2017년 약 19백만 달러로 급격히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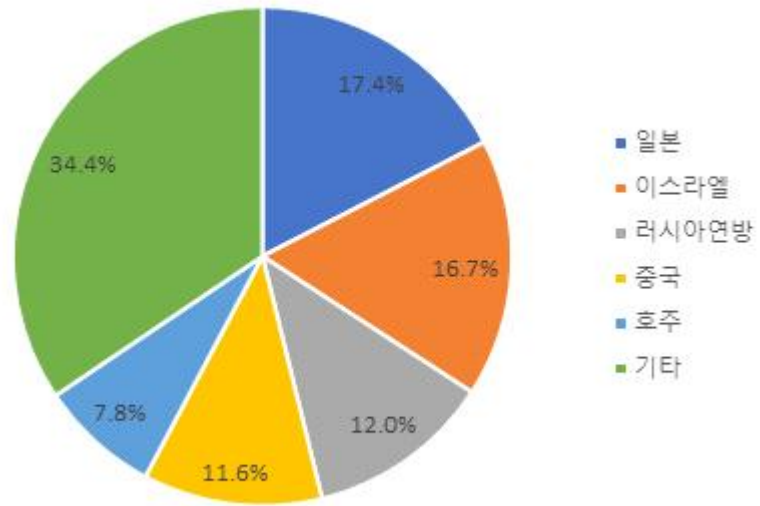
표 1.12 한국산 인스턴트커피 수출 규모 추이(2013-2017년)

(단위: 천 달러, %)

수입상대국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가율
글로벌	72,254	107,317	106,539	102,012	110,198	11.1%
1 일본	3,756	4,079	4,381	2,003	19,205	50.4%
2 이스라엘	16,733	19,005	20,569	17,503	18,432	2.4%
3 러시아연방	5,394	5,438	5,169	9,734	13,231	25.1%
4 중국	13,729	31,033	20,177	16,724	12,794	-1.7%
5 호주	6,433	4,760	3,583	926	8,595	7.5%

자료: Trade Statistics Service

그림 1.5 한국산 인스턴트커피 글로벌 수출 비중(2017년)



자료: Trade Statistics Service



II. 시장 트렌드

1. 소비 트렌드
2. 제품 트렌드
3. 유통 트렌드

시장 트렌드 개요

1. 소비 트렌드

- ❖ 러시아의 커피 소비는 2000년 이후 크게 증가
- ❖ 가처분소득 증가에 따른 내수경기 회복은 천연 커피 시장에 긍정적 영향
- ❖ 고품질 커피에 대한 관심 증대로 커피 구매 시 다양한 속성 고려

2. 제품 트렌드

- ❖ 커피 소비는 증가하는 반면 인스턴트커피¹⁴⁾에 대한 선호도는 하락
- ❖ '반미주의' 이데올로기를 탈피해 미국의 커피시장 벤치마킹
- ❖ 우리나라 캔커피의 인기

3. 유통 트렌드

- ❖ 러시아 내 커피 판매량은 증가하는 한편 유통채널별 판매량은 변동이 큰 편
- ❖ 비점포소매점¹⁵⁾ 대비 점포소매점을 통한 커피 판매량이 약 17배 가량 높으나 비점포소매점의 판매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

14) Euromonitor International은 커피의 종류를 천연커피(Fresh Coffee)와 인스턴트커피(Instant Coffee)로 분류함

1. 소비 트렌드

□ 러시아의 커피 소비는 2000년 이후 크게 증가

- 러시아 커피 소비는 2000년 이후 2배 증가하여 인 당 연간소비량은 1.7kg¹⁶⁾
 - 2017년 온음료시장 매출액 가운데 커피 매출액이 52.9%를 차지
 - 추운 기후와 연관성이 높은 러시아의 차문화에 커피가 정착했음을 시사
 - 2016~2021년 연간 커피 소비는 2% 증가할 전망, 차(tea)시장의 경우 1% 성장률 예측

□ 내수경기 회복에 따른 가처분소득의 증가는 천연 커피시장에 긍정적 영향

- 인스턴트커피보다 천연커피가 전체 커피 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스턴트커피에서 천연커피로의 소비패턴 변화는 내수경기 회복에 따른 구매력 상승에 의한 것으로 분석됨
 - 인스턴트커피 매출액은 2017~2022년 연평균 약 4.2% 증가가 예상되나, 이는 성장률 측면에서 과거보다 크게 축소된 수치임

표 2.1 러시아 커피 종류별 매출액 및 성장률 추이

(단위: 백만루블, %)

구분	매출액 (2017년)	성장률 (2017년)	연평균성장률 I (2012~2017)	연평균성장률 II (2017~2022)
천연커피	61,972.2	11.1%	16.1%	7.7%
인스턴트커피	128,429.2	5.5%	8.3%	4.2%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 천연커피 관련 신규 니치마켓으로 투자 자본이 활발하게 유입되고 있으며, 체인점 카페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 카페의 시장유입이 증가하고 있어 시장경쟁이 과열되고 있음

인스턴트커피는 첨가된 향과 디카페인 여부와 상관없이 동결건조방식의 과립제 혹은 가루 커피, 커피믹스를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나 병음료나 RTD 커피는 제외함

15) 점포없는 유통채널로서 자판기, 홈쇼핑 온라인, 직접판매가 이에 해당함

16) WorldFood Moscow(2018.3.14)

- 2016년 말 저가 커피시장을 타겟팅한 이스라엘 기업 'Cofix'가 신규 런칭¹⁷⁾했으며 호주기업인 'Coffeeshop Company'는 3년 내 90개의 매장에서 245개의 매장으로 사업 확장¹⁸⁾을 계획하고 있어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고품질 커피에 대한 관심 증대로 커피 구매 시 다양한 속성 고려

- 커피 관련 문화가 보급 및 전파되면서 고급 커피를 찾는 소비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급화 제품의 판매량 또한 증가하는 추세
- 소비자의 취향이 고급화됨에 따라 제품 구매 시 브랜드 외에도 원산지와 원두 종류와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
- 적은 초기 투자자본 등 용이한 시장진입 요건에 따라 우후죽순 생겨난 키오스크 카페는 저가 테이크아웃 커피 소비 하락으로 폐업률이 증가함

2. 제품 트렌드

□ 러시아의 커피 소비는 증가하는 반면 인스턴트커피¹⁹⁾에 대한 선호 하락

- 2012년~2017년 러시아 커피의 연평균 매출액과 판매량은 각각 10.5%, 1.6% 증가
- 인스턴트커피는 판매량과 매출액에 있어 그 비중이 모두 감소하는 추세
 - 인스턴트커피의 판매액과 판매량 비중이 모두 연평균 0.2%로 감소하여 인스턴트 커피 대비 천연커피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함
- 인스턴트커피의 판매액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판매량은 증감을 반복함
 - 2012년 68,434톤 대비 2017년 67,050톤으로 소폭 감소함

17) Bloomberg (2016.10.10)

18) Interfax (2017.05.10)

19) Euromonitor는 커피의 종류를 천연커피(Fresh Coffee)와 인스턴트커피(Instant Coffee)로 분류함. 인스턴트커피는 첨가된 향과 디카페인 여부와 상관없이 동결건조방식의 과립제 혹은 가루 커피, 커피믹스를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나 병음료나 RTD 커피는 제외함

표 2.2 러시아 인스턴트커피 매출액 추이(2012~2017년)

(단위: 백만 루블,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가율
커피	115,561	122,820	130,666	159,556	177,508	190,401	10.5%
인스턴트 커피	86,223 (74.6%) 20)	89,688 (73.0%)	93,201 (71.3%)	111,292 (69.8%)	121,720 (68.6%)	128,429 (67.5%)	8.3% (-0.2%)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표 2.3 러시아 인스턴트커피 판매량 추이(2012~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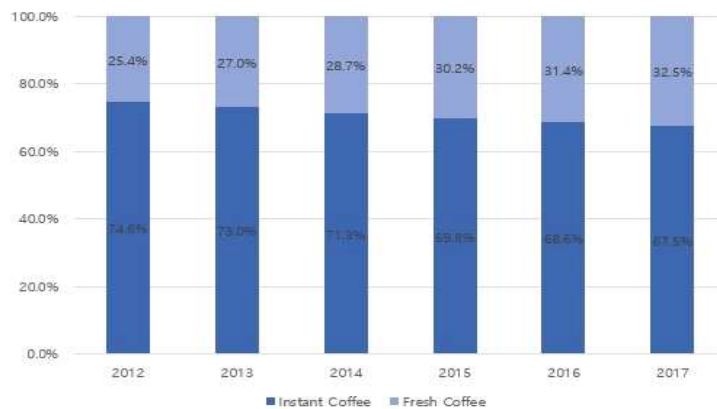
(단위: 톤,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가율
커피	106,631	108,873	110,734	111,111	112,838	115,555	1.6%
인스턴트 커피	68,434 (64.2%)	67,851 (62.3%)	67,623 (61.1%)	67,270 (60.5%)	66,994 (59.4%)	67,050 (58.0%)	-0.4% (-0.2%)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 2012년~2017년 전체 커피시장의 꾸준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인스턴트커피는 판매액과 판매량이 있어 모두 비중이 감소함
 - 2012년 인스턴트커피는 판매액의 74.6%, 판매량의 64.2%를 차지했으나 2017년 각각 67.5%, 58.0%로 축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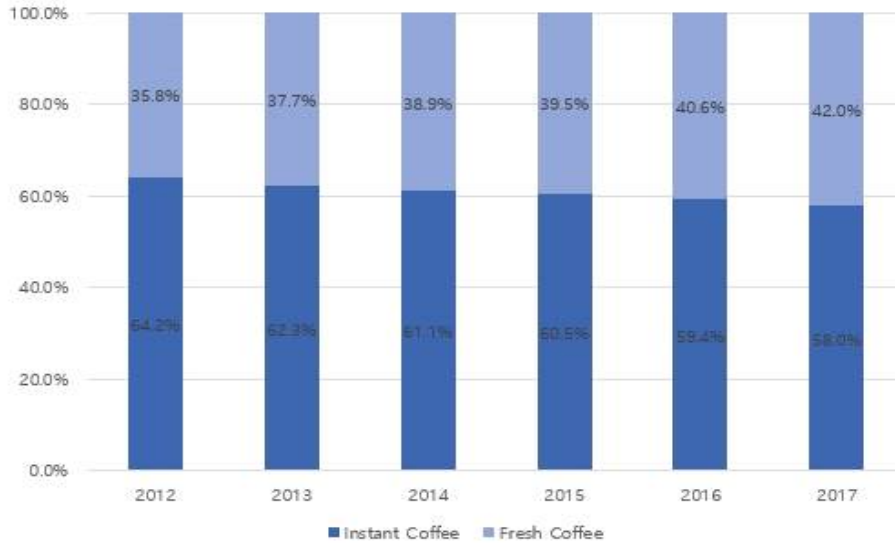
그림 2.1 러시아 천연커피와 인스턴트커피 매출액 비중 추이(2012~2017년)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20) ()안은 인스턴트커피/커피 비중

그림 2.2 러시아 천연커피와 인스턴트커피 판매량 비중 추이(2012~2017년)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 천연커피 제품의 소비 증가 원인은 도시화 및 외국문화의 유입으로 커피가 과거 소매점에서 소비하는 제품에서 카페에서 즐기는 제품으로 개념이 변화하였기 때문임
- 현 커피 시장 선두 기업은 소비자의 변화에 맞춰 천연커피 마케팅을 강화하고, 제품 라인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음
- 또한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을 출시하고 가격 할인과 같은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음

□ 미국의 커피시장 벤치마킹

- 최근 2~3년 사이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뉴욕의 거리를 연상시키는 카페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으며 업계는 미국의 카페 서비스를 벤치마킹하며 성장하고 있음
- 2017년 9월, 스타벅스가 극동부 지역인 블라디보스토크점을 오픈한다는 허위 소문으로 SNS 계정에 1,500명이 몰리는 등 높은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음
 - 이는 서부국가를 대표하는 커피문화가 러시아에 안착했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커피산업의 지역적 격차를 드러낸 사건

□ 우리나라 캔 커피의 인기

- 러시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대표적인 한국 커피는 팔도의 '산타페', 롯데의 '레쓰비', 일화의 'Fall in Love' 등이며 한국의 커피가 러시아 캔커피 커피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 '레쓰비'의 경우 극동지역 내 캔커피 시장점유율의 90%를 차지하여 부동의 1위 고수²¹⁾
 - 롯데칠성음료는 '레쓰비'와 '밀키스'의 성공으로 연평균 10%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러시아 시장에서 한국 음료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음²²⁾
 - 또한 롯데칠성은 따뜻한 커피를 즐기는 러시아 커피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온장고를 제공함으로써 80%에 이르는 시장점유율을 기록
- 캔커피는 러시아에서 고가 제품으로 포지셔닝 되어 있어 수익성이 높은 제품군으로 평가됨

3. 유통 트렌드

□ 러시아 내 커피 판매량은 증가하는 한편 유통채널별 판매량 변동의 편차가 큰 편

- 최근 5개년(2013년~2017년)의 커피 판매량은 108,873톤에서 115,555톤으로 연평균 1.5% 증가한 가운데 유통채널 간 판매량 변동의 편차가 크게 나타남
 - 자판기를 통한 판매량이 연평균 15.2% 증가한 반면 기타식품소매점의 경우 23.8% 감소함

21) 매일경제 (2018.06.20)

22) 아시아투데이 (2018.06.21)

표 2.4 러시아 커피 유통채널별 판매량 추이(2013~2017년)

(단위: 톤, %)

구 분 ²³⁾	2014	2015	2016	2017	2018f	연평균 증가율
1. 점포소매점	105,235	106,439	106,188	106,978	109,300	1.0%
1) 식품소매점	105,235	106,439	106,188	106,978	109,300	1.0%
① 현대식품소매점 ²⁴⁾	65,537	68,808	74,185	77,975	82,714	6.0%
- 편의점	14,499	15,754	18,325	19,906	21,478	10.3%
- 포코트소매점	1,002	1,007	884	801	824	-4.8%
- 하이퍼마켓	10,190	11,295	12,883	13,895	14,640	9.5%
- 슈퍼마켓	39,846	40,752	42,093	43,372	45,772	3.5%
② 전통식품소매점	39,699	37,630	32,003	29,003	26,586	-9.5%
- 특판점	1,252	1,395	1,175	1,049	1,069	-3.9%
- 독립소형소매	27,435	27,685	25,544	24,238	21,809	-5.6%
- 기타식품소매	11,012	8,551	5,284	3,716	3,708	-23.8%
2. 비점포소매점²⁵⁾	3,637	4,295	4,923	5,860	6,255	14.5%
총 계	108,873	110,734	111,111	112,838	115,555	1.5%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 비점포소매점 대비 점포소매점 통한 커피 판매량이 월등히 많으나 비점포채널의 판매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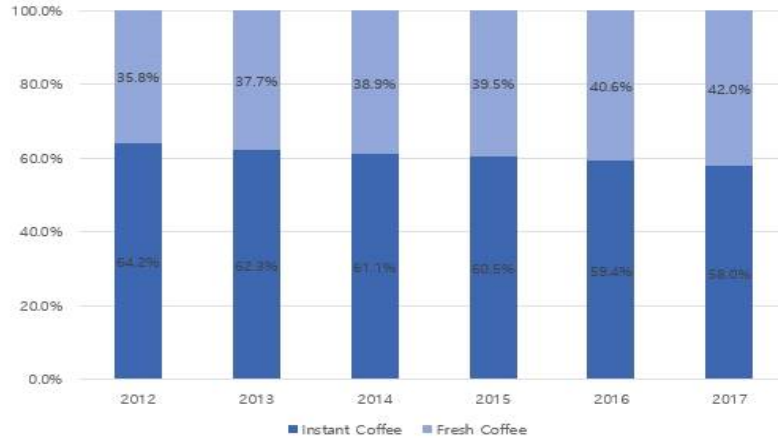
- 점포소매점을 통한 커피 판매량은 연평균 1.0% 증가하여 전체 유통채널의 성장률인 1.5%를 하회했으나 비점포소매점 대비 약 17배 가량 많은 판매 비중을 차지함
 - 대부분의 커피를 유통하는 대표적인 채널로써의 견고한 입지 확인
- 2013년 비점포소매점을 통한 커피 판매량 비중은 3.3%에 그쳤으나 2017년 5.4%로 상승, 비점포소매점의 비중이 연평균 14.5% 확대됨
 - 자판기(12.7%) 및 온라인(5.0%)을 통한 커피 판매량이 빠르게 증가했으며 특히 자판기를 통한 판매량은 5년 사이에 3,430톤에서 6,037톤으로 약 1.8배 증가함

23) 2014년~2018년, 유통채널 중 매출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채널은 제외함

24) 하이퍼마켓은 식품과 비식품 제품을 취급하며 2,500m²이상의 매장규모, 슈퍼마켓은 식품 비율이 70% 이상이며 400~2500m²의 물리적 공간 크기를 기준으로 함

25) 온라인판매와 자판기판매가 이에 해당함

그림 2.3 점포소매점의 커피 판매량 비중 추이(2012~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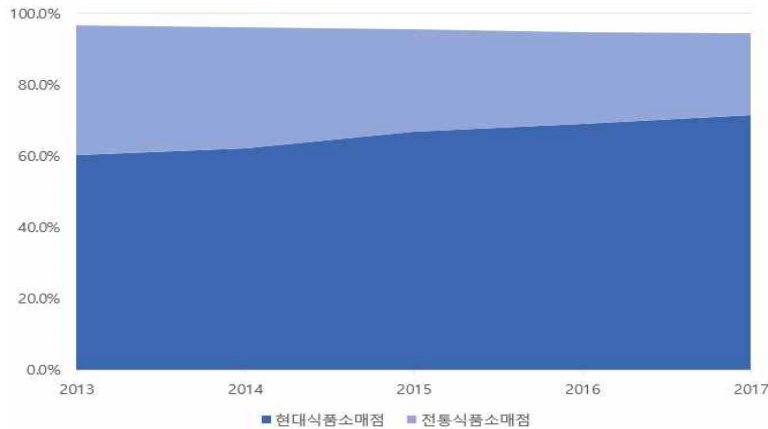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 현대식품소매점의 역할 증대와 전통식품소매점의 쇠퇴

- 현대식품소매점 중 가장 많은 판매량을 차지하는 하위 채널은 슈퍼마켓으로 2017년 45,772톤의 판매량을 기록, 이는 현대식품소매점의 판매량 중 32.1%에 해당하는 수치
- 편의점을 통한 커피 판매량이 연평균 10.4%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하이퍼마켓이 8.2%의 높은 성장률 기록
- 전통식품소매점을 통한 커피 판매량은 2013년 39,699톤에서 2017년 26,586톤으로 하락하여 연평균 9.5% 감소

그림 2.4 러시아 커피 현대식품소매점 판매량 비중 추이(2013~2017년)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Ⅲ. 통관 및 제도

1. 통관 및 검역
2. 인증정보
3. 리벨링
4. 위생요건

통관 및 검역 개요

❖ 러시아 식품 수출입 프로세스

러시아에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관리 기관인 러시아 연방 세관(Federal Customs Service)이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 5단계의 수출입 프로세스를 이행해야 함

번호	프로세스	주요내용	체크사항
1	수출계약	- 거래선(바이어) 발굴 - 계약 진행	• HS code 확정, 인증발급, 세금 예치
2	서류 준비	- TR CU 인증, 선하증권, 세관 수입신고서, 포장명세서 등 10가지 서류	• 주요 항만: 상트페테르부르크 항, 블라디보스톡 항
3	선적/출항	- 수출통관, 포워딩 업체 지정, 운송	- 러시아농업부/보건부 (www.mcx.ru/minzdrav.gov.ru) •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감독
4	수입신고/검역	- 입항 후 15일 이내 수입신고 - 동물성 식품, 식물성 가공식품으로 분류하여 검역	- 통합식별 및 인증시스템 (EPIS, Integrated System of Identification and Authentication) • 전자 정부에서 필요한 정보 열람 가능, 2018년 8월 1일 시행 예정
5	통관 완료	- 세금 납부처리=수입관세+부가가치세+소비세 • 항공운송 반입상품 사전통보 의무화 • 통관서류 러시아어 필수	- 러시아 관세청 (http://eng.customs.ru) • 세관 규정, 세율 조회, 항만 정보 등 안내

자료: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

❖ 러시아 HS-CODE 2101.11.0015의 협정세율(2017년 기준)²⁶⁾

HS CODE	구분	관세율
2101.11.0015 기타 (중량이 3kg미만 동결건조 인스턴트커피)	한-러 FTA 추진현황 없음	7.5% (1kg당 최소 0.34유로는 초과해야 함)
	최혜국 (Most favored nation, MFN)	기본세율의 75% 적용
	유라시아경제연합 (CIS)	개발도상국: 기본세율의 75% 적용 후발개발도상국: 면세

❖ 부가가치세 정보

HS CODE 2101.11.0015 - 18%

관세 및 세금 개요

❖ 러시아 관세율 확인 방법

- 1) '관세법령정보포털 3.0 > 세계 HS > 관세율표'에서 러시아 연방을 선택한 후 확인하고자 하는 품목의 HS Code를 입력하면, 해당 품목의 최혜국과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 확인이 가능
- 2) '통합무역정보서비스(www.tradenavi.or.kr) > FTA/관세 > 통합관세비교(한국 FTA기준)'에서 FTA 협정 정보, 관세율, 원산지 기준 확인이 가능
- 3) '러시아 상공회의소(Торгово-Промышленная Палата РФ)' 웹사이트(<https://www.rusimpex.ru/>) > 'Customs'에 들어가서, 러시아 HS CODE를 입력하면 관세율 확인이 가능

분류	기관 사이트명	URL
관세율	관세법령정보포털 3.0	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통합무역정보서비스	www.tradenavi.or.kr
	러시아 상공회의소	https://www.rusimpex.ru

1. 통관 및 검역

1) 통관 및 검역 절차

□ 수입식품 수출 전 준비사항

- 2017년 4월 1일부터 항공운송 반입상품에 대한 사전 통보가 의무화됨
 - 사전 정보는 상품반입을 이행하는 운송인 혹은 그 대리인이 상품도착지의 세관 기관에 제공해야 함
 - 사전 정보는 항공기 및 비행경로 정보와 운송서류 기재 반입상품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함
- 통관 서류는 러시아어로 준비해야 함
 - 영문서류는 허용되지 않고, 러시아어 서류만 공식 인정하고 있음. 또한, HS코드 분류표에 영어가 병기되어 있지 않아 정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음
- 신뢰할만한 통관 대행업체를 발굴하는 것이 관건이며 러시아는 통관 절차상 일선 세관장이나 담당자의 재량권이 높은 국가이므로 수출 입항 장소에 따라 집행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대러시아 수출 시, 통관절차는 개괄적으로 4단계(서류준비-수입신고-통관심사-물품반입)로 진행됨

그림 3.1 러시아 통관 절차



□ 서류 준비

- 식품을 수출에 앞서 필요한 서류는 선하 증권, 상업 송장, 포장명세서를 필수로 구

비해야 함

- 안전증명서, 원산지 증명서(C/O) 등을 품목별로 추가 제출할 가능성 있음
- o 관세납부 전 사전 예치 요건(수입물품· 운송수단, 해당금액 예치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
- o 표 3.1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세관에서 수입자 업체²⁷⁾로 등록하고 등록 번호 취득
 - 러시아 정부는 2004년 1월 1일부로 통관 제도의 통합/간소화를 목적으로 신(新) 관세법을 시행, 업체 등록만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o 수입규제품목 관련 1) 라이선스 취득, 2) 품질 인증마크 부착, 3) 품목별 인증서 획득 등의 수입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
 - 제품마다 다양한 취득 인증이 존재하여 수입자 스스로 업무를 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현지 관세사나 인증대행업체를 이용하여 통관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수입허가는 러시아의 기술, 의약, 위생, 수의, 식물검역, 환경 등의 분야에 적합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수입허가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므로 수입자 및 현지 전문가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
 - 러시아의 국가 표준위원회가 표준화, 규격, 기타 인증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며 동 위원회에서 러시아의 법규 등에 대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함

표 3.1 러시아 수입자 등록 서류

수입자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 변경/ 개정본 포함(공증본) - 입헌동의서(공증) - 사업자등록증명서(세무서 발행 납세자 등록증, 공증본) - 국가통계위원회 증명서 (RusStat 발행 증명서) - 지불계좌 개설한 은행의 Reference - 외환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Reference - 세무국 등록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연방 법인등기부 등재증명서(공증본)법인 대차대조표 - 최고경영자 임명에 관한 이행 결의문 - 회계담당자 임명에 관한 이행 결의문 - 최고경영자 여권 사본(공증본) - 회계담당자 여권 사본(공증본) - 법인 등록 주소에 대한 차용계약서 - 관세사 위임장 - 법인대표가 외국인인 경우 노동허가증

²⁷⁾ 러시아의 수입세관은 권역별로 크게 8개의 지방세관 아래 77개 관할세관이 있고, 481개의 분소가 있으며, 항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동아시아지역의 경우 극동 세관 11개의 관할세관이 있으며, 47개의 세관 분소가 있음

□ 수입신고

- 러시아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은 반드시 수입신고를 통과해야 함. 최종 화물반출이 이루어지기까지 최장 2개월까지 보세창고에 보관되며 그 안에 통관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수수료가 부과됨
- 수입물품들은 입항한 이후 15일 이내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수입신고인은 반드시 세관에 사전 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서 발급대상 물품의 경우 수입허가서 취득 후 담당세관에 수입신고서 제출
 - 전자신고(EDI신고)는 아직 크게 활성화되지 않은 단계이며 수입자는 서류 및 디스켓 등을 통해 수입신고서를 제출
- 지정품목의 경우 밀수입 방지를 위하여 러시아 연방 FEACC코드²⁸⁾를 세관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함
 - 지정품목: 육류, 포도주, 앨범, 직물, 컴프레서, 냉장고, 모니터, 컴퓨터, 자판기, 손목시계, 약기 등 125개 품목
- HS Code 확정을 위해 수입물품의 사진자료와 제품설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수입 물품 가격이 러시아 세관의 동 물품 기준가격보다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격에 관한 증빙서류 추가 제출

표 3.2 러시아 수입통관 서류

통관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명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Bill of Lading/Airway Bill) - 운송보험서류(Certificate of Insurance) - 수입허가서(Import License)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수출신고필증(수출국 관할세관이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계약서 - 제품 품질 증명서(GOST: 수입자가 발급받은 제품 품질 증명서) - 제품설명서 - 외환거래확인서 - 관세, 부가세, 수입인지세 예치금 송금장 은행 확인서 - 기타 세관이 필요할 시 요구하는 서류

- 2004년 이후 신(新) 관세법의 시행 이후 원칙적으로 신고접수 후 3일 이내 통관 완료 규정이 되어 있지만 여전히 통관 절차상 관할 세관 공무원의 재량권이 높은 편이

28) FEACC(Foreign Economic Activity Commodity Classification code)는 1C자리 숫자로 구성된 제품분류체계로 브라질의 NCM코드, 우리나라의 HSK 코드와 같이 세계 표준인 6자리 HS코드를 러시아 산업 환경을 반영하여 세분화 함

며, 통관 항구마다 세관 집행방식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기존에는 수입신고자의 주소지 관할 세관에서만 수입통관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현재에는 어느 세관에서도 통관 진행 가능
- 러시아 세관에서는 물품별 자체적인 기준가격을 책정함. 따라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물품 가격 산정과 관련한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잦으므로 물품 단가를 낮춰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 저가신고 적발 시 행정 및 형사처벌 위험
- 수입통관서류는 영문본이 허용되지 않고 러시아어로 된 통관 서류만 인정하는 것이 보편적

□ 통관심사

- 수입 물품에 대한 검사는 표본 추출검사 형태로 진행되나, 약 40%의 수입화물이 심사되어 검사 비율이 높은 편
 - 컨테이너 봉인이 파손되거나 서류 상의 물품 정보와 실제 수입 물품이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통관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수검사를 시행
 -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화물검사 소요시간이 길고 제품파손 및 분실 사고가 많은 편
- 산재된 검사방식 및 형식적 절차로 인해 통관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추정하기 어려움
 - 화물검사 후, 관세위원회에서 작성된 검사서를 바탕으로 수입신고서류와 비교, 대조하는 절차로 인해 추가적인 통관 시일이 소요

□ 관세 납부

- 관세납부 방식은 예치증서 방식과 Customs Card 방식으로 구분됨
 - 예치증서 방식: 가장 보편적인 관세 납부 방법으로서 일정 금액을 관할세관별로 지정된 예치계좌에 입금한 후 해당 은행이 입금증을 발급함. 발급받은 입금증에 명시된 금액을 한도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시마다 입금증 원본에 잔액 내역을 확인 후 날인함
 - Customs Card 방식: 최근 적용되는 방식으로 은행 예치계좌에 일정금액을 예치하는 것은 동일하나 직불카드와 같이 각 세관에 비치된 단말기를 통해 예치계좌 잔액을 충전하면 납부 시마다 새롭게 입금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됨

□ **물품반입 및 환급**

- 통관 절차에 관련된 모든 서류사본을 연방 관세위원회(Federal Customs Committee)에 송부하고 동 기관에서 최종 통관이 결정되면 물품이 반출됨

표 3.3 러시아 통관 시 유의사항

수출절차	유의사항
서류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어로 된 통관서류만 인정됨 - 서류상의 경미한 실수도 해당 세관의 엄격한 규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수입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관업무 위탁업체를 통해 세관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통관 시, 기본/특수/예비 3단계의 서류를 준비해야 함 - 물품 단가 저가신고 적발 시 심각한 행정/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
통관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 40%의 화물이 검사대상이 되어 화물 검사비율이 높은 편이며, 수입 초기 제품에 대해서는 전수검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짐 -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화물검사 소요시간이 길고, 제품파손 및 분실의 우려가 큼
관세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치증서 또는 Customs Card를 통해 이루어짐
물품반출 및 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연방 관세위원회의 최종 승인이 필요함 - 보관료가 비싼 편으로 통관 지연 시 부대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음 - 수입통관 과정상의 모든 관련 서류사본을 연방 관세위원회에 송부해야 함

2) 관세율²⁹⁾

- 러시아는 2012년 8월 WTO(세계무역기구)에 정식 가입함에 따라 우리나라와 같은 HS Code 방식을 상품 분류 코드 채택
 - 러시아의 HS Code는 최종 10단위로서 최종단위에 따라 관세 부과되는 한편, WTO의 가입 이후 5년간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2017년도까지 매년 러시아의 수입관세율은 거의 모든 품목에서 하향 조정할 예정

29) 러시아 관세청

표 3.4 HS 한국-러시아 HS코드 비교

국가	HS code	제품 설명
한국	21	조제식료품
	2101	커피·차·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210111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을 기본 재료로 하거나 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210111000	인스턴트커피
러시아	21	조제식료품
	2101	커피·차·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210111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2101110015	동결건조된 커피로서 3kg이하로 소매포장된 물품

자료: 한국 관세법령정보포털3.0

3) FTA 정보

□ 한-EAEU FTA 추진

- 2015년 12월부터 착수한 한-EAEU³⁰⁾ FTA 협상은 지지부진한 경과를 보임, 지난 3년간 여러 차례의 민간공동연구 세미나와 정부 간 협의회를 통해 양자 간의 협의안을 개진했으나 협상 체결은 미진하다는 평가
- 2018년 6월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을 먼저 체결하기로 합의, 한-EAEU FTA 체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

30) 2015년 1월,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을 발전시켜 출범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이 추가 가입하였으며 다른 CIS 국가로 확대할 계획

- 한-EAEU FTA 체결로서 기대되는 경제효과는 EAEU 경우 회원국 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총 44억달러, 한국의 경우 26억 1,400만달러로 추정됨
 - 상호관세 철폐 및 비관세장벽 50% 감소를 가정 시, 러시아(0.64%, 75억 달러 ↑), 아르메니아(2.23%, 2억6000만 달러 ↑), 벨라루스(2.93%, 22억 달러 ↑), 카자흐스탄(1.06%, 23억1000만 달러 ↑), 키르기스스탄(2.02%, 1억5000만 달러 ↑), 한국(0.23%, 32억 달러 ↑)

※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 기대효과

- 1) 물류(운송해운), 의료, 관광, 건설, 정보기술 등 서비스 분야에서 성장세(* 90년대 32.1% → '17년 56.2%)*에 있는 러시아의 서비스 시장을 선점
- 2)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 및 투자자보호제도 강화를 통해 양국 기업들의 상호투자 촉진
- 3) 향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의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위한 계기 마련

* EAEU와의 FTA 개시를 위해서는 러시아를 포함한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

자료: 산업통상부

표 3.5 FTA 체결 시 한- EAEU 교역 증가 추정액

(단위: 백만 달러)

국가	수출 (한국 →EAEU)	수입 (EAEU→한국)
러시아	1540.0	910.0
카자흐스탄	160.0	7.2
벨라루스	28.0	0.8
키르기스스탄	9.6	0.6
아르메니아	4.9	0.3
합계	1742.5	918.9

자료: 산업통상부

2. 인증정보

□ 유라시아경제공동체(EAEC) 동맹국 간의 경제협력 강화

- 유라시아경제공동체(EAEC)는 2018년 1월 1일부터 동맹국 간 9절 60장으로 구성된 새로운 관세 코드를 적용할 방침
 - 모든 통관양식을 전자화하고 허가받은 동맹국 기업을 대상으로 통관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
- 이로 인해 유라시아경제공동체(EAEC) 내 무역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회원국이 아닌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함
- 러시아를 대상으로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더 강력한 경쟁력을 키워 더 높아진 무역 장벽을 극복해야 함
- 식품산업의 경우, 2018년 6월 개시된 '한·러 서비스투자 협상' 안건³¹⁾에 해당하지 않아 커피산업 시장에 진입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은 강화된 무역 장벽을 체감할 전망

1) GOST-Russia(GOST-R)

□ GOST-R은 국가기술표준규격으로서 20,000여 종류에 이르며 CIS국가(12개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수출 시 활용도가 높음

- CIS국가³²⁾에서 활용되는 동일한 규격임에도 불구하고 인증서와 인증기관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러시아의 경우 GOST-R, 카자흐스탄의 경우 GOST-K로 공식적인 명칭에 차이를 두고 있음
- GOST-R을 인증기관으로는 1) 러시아 국가표준위원회, 2) 산업자원부 관련 검사/시험기관 (산업 기술 시험원 외국 인증팀) 3) Sercons 대한민국 지사, 4) GSI(범세검정), 5)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있음
- 품목별로 인증 기간은 품목에 따라 차이를 보이나, 통상 약 2주에서 한 달 내로 받을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건설품목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됨

31) 산업통상자원부 (2018.6.22)

32)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 해체되면서 결성된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의 회원국은 12개 국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몰도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그루지아가 이에 속함

표 3.6 GOST-R 인증 기관

기관명	연락 및 정보
러시아 국가표준위원회 (Federal Agency on Technical Regulation on Metrology)	러시아 국가표준 위원회는 자체 조직을 통해 인증제도 운영, 여러 부속기관, 위임을 부여한 기관을 통해서도 인증서 발급. 인증에 필요한 항목 중에서 CE 등 다른 인증에서 이미 통과한 경우에는 GOST 인증시 해당 항목에 대해 면제
산업자원부 관련 검사/시험기관 (산업 기술 시험원 외국 인증팀)	http://www.ktl.re.kr/site/main/index001
Sercons 대한민국 지사	http://www.sercons.co.kr/main.php
GSI(법세검정)	www.sercons.co.k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http://new.ktr.or.kr/kor/test/business1_n01.php

- 인증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는 제품 HS CODE, 제품사양, 제품 카탈로그, ISO 9001, 국제인증서 및 시험성적서가 있으며, 화학제품과 화장품의 경우 MSDS와 제품 성분표를 추가 제출해야 함
 - 통상적으로 비알콜 음료의 경우 GOST 6687.0-86을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인스턴트커피의 경우 GOST-R 인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성분과 가공방식에 따라 인증규격이 종류가 상이할 수 있음

표 3.7 인스턴트커피 GOST-R 승인 내역

GOST 규격	내용	인증일
ISO 24114-2013	Authenticity Criteria Approved	2015. 01. 07
ISO 3726-2014	Determination of mass loss at 70 ° C and reduced pressure Approved	2016. 01. 01
ISO 32776-2014	General specifications Approved	2016. 01. 01

자료: 러시아 차&커피 협회

- GOST-R 인증 실효 기간은 제품군별로 다르나 일반적인 인증갱신기간은 약 3년

그림 3.2 GOST-R 적합성 신고서 샘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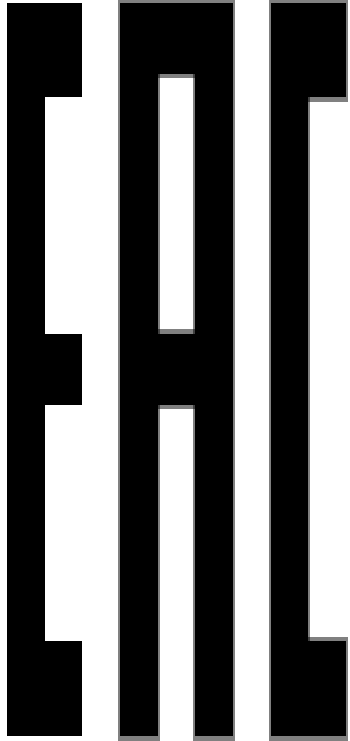


자료: 제약산업정보포털 (www.khidi.or.kr)

2) 관세 동맹 기술 규정 (TR CU)

- o 러시아에서 신선 및 가공식품은 별도의 허가등록 없이 제품의 품질 및 안전 요구사항의 적합성을 증명 검역 시행. 이를 통과할 경우 TR CU 인증 취득
 - 2015년부터 관세 동맹국 내 등록된 현지법인, 지사, 수입업자, 딜러는 기존 GOST 인증서 사용을 금지하는 방침에 따라 TR CU 인증을 발급받아야 함
- o 인증서는 제품군과 세부사항에 따라 CoC(Certification of Conformity: 적합성 인증),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적합성 선언) 로 나뉨
 - 동일 제품군의 제품이라도 용도와 환경, 사양, 위험성에 따라 CoC와 DoC로 나뉠 수 있음
 - 유효기간에 따라 One shipment 인증과 Serial 인증으로 나뉨. One-shipment 인증은 일회성 계약 인증에 적합하며 Serial 인증은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유효함

표 3.8 TR CU(관세 동맹 기술 규정)

인증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제품이 관세동맹의 기술규제 안전요건에 검증 절차 통과 시 부여되는 인증 - 2014년 GOST-R에서 TR CU인증으로 변경 - 유라시안 관세동맹/경제연맹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탄, 알메니아 총 5개국)에서 발효한 통합 인증 제도 	
발행기관	러시아연방 기술표준청	
성격	필수인증	
제출서류	신청서, 공장심사성적서, 제품 사진, 제품 설명서	
비용	800만원-1,100만원	
신청자	관세동맹국 내 등록된 현지법인, 지사, 수입업자, 딜러 등	
유효기간	One-shipment 인증: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이행 기간까지 유효. Serial 인증: 1-5년 동안 유효	
유의사항	기존에 GOST-R 인증은 대부분 TR CU(EAC 인증) 인증으로 대체되었음. 따라서 GOST-R 인증을 취득했던 기업도 TR-CU 인증 획득 반드시 필요	

자료: 러시아 연방 기술표준청(www.gost.ru)

표 3.9 TR CU 인증 유형 및 절차


Coc(Certificate of Conformity) 인증절차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인증절차
1) 러시아 연방 기술표준청에 신청서 제출	1) 신청서류 준비 및 관세동맹에서 지정한 DoC 양식에 맞춰 해당 기술규정에 적합함을 기술한 DoC 작성 2) 신청 제품에 EAC 마크 부착 3) DoC 온라인 등록
2) 신청 제품이 TR CU 대상인지 확인 후, 지정 시험기관을 통해 시험 실시 및 시험성적서 평가	
3) 샘플시험 및 공장심사 진행	
4) CoC 발행	
※전체 필요서류 제출 및 공장심사 후 2주 (제품 특성 및 사양에 따라 상이)	

자료: 러시아 연방 기술표준청(www.gost.ru)

3) 국가 위생 등록 (State Registration Certificate)

- 위생증명서는 러시아 연방 보건 위생국에서 발행하는 인증서로, 사람이 직접 섭취하거나 접촉하는 물품에 대한 인체 무해성 및 안전성을 증명하는 인증서
 - TR CU 인증을 받기 전 발급받아야 하며 위생증명서는 러시아 통관 시 세관 제출
- 2010년 관세 동맹국 간 체결한 Decision of CU Commission No.299, 28.05.2010에 따라 기존 국가별 발행되던 위생 등록증이 하나로 통합됨
- 2012년 1월 1일부터 위생청으로부터 승인된 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감정서(Expert Conclusion)와 국가위생등록(State Registration) 인증서 발급이 필요
- 국가등록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은 국가등록증을 반드시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나 위생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함
- 위생증명서 발급 서비스 수수료는 아래와 같음
 - 신규로 등록하는 식품, 원료, 제조품 (세공품) 등록 수수료: 5,000루블
 - 러시아 연방으로 처음 수입되는 제품, 인간에 잠재적인 위험을 끼칠 수 있거나 단일 종류 제품의 등록 수수료: 5,000루블
 - 등록증명의 변경: 350루블

표 3.10 국가 위생 등록(State Registration Certificate)

인증 설명	사람이 직접 섭취하거나 접촉하는 물품들에 대한 인체 무해성 및 안전성을 증명하는 인증서	
발행기관	러시아 연방 보건 위생국(Rospotrebnadzor) 으로부터 승인된 기관	
성격	선택인증이나, 식품의 경우 위생등록대상 권장	
제출서류	신청서, 기술사양명세서, 제품설명서, 지침서, 브로슈어, 제조공장 시험성적서 등	
소요기간	1-2개월	
갱신기간	발급 후 제품이 단종될 때까지 유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위생등록은 절차가 까다롭고 샘플테스트 필요 - 국가위생등록은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연방정부 감독 하에 발행됨. 따라서 필요서류 제출 시, 세부 항목이 빠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필요 	

자료: 러시아 연방 보건 위생국(www.rospotrebnadzor.ru)

3. 라벨링

라벨링 정보 개요

❖ 판매 중인 인스턴트커피 라벨링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명 : Tchibo Exclusive ▶ 구성성분 : 아라비카, 로부스타 원두 ▶ 중량: 95g ▶ 제조사: ГРАНД-НН ▶ 주의사항 : 20℃ 아래, 공기 중 습도가 75% 이하인 곳에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 요망 ▶ 유통기간 : 2020년 4월 27일까지 ▶ 원산지 : 벨라루스 ▶ 인증: TR CU
--	--

자료: 현지조사원

❖ 러시아 가공식품 라벨 의무 표기 사항 (TR TS 022/2011)

항목	설명
제품명	제품의 특징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명칭 표기
구성성분	제품의 원재료 및 구성 성분을 내림차순으로 표기
제조사	제품의 제조업체명과 법적 주소에 대한 내용 기재
주의사항	제품의 보관법 자세히 기재
유통기간	제조일자로부터 기한일 수 혹은 '년, 월, 일까지'가 원칙
원산지	수입제품의 경우 원산지의 국가 명 반드시 기
기타	영양성분, GMO 원료 사용여부, 식품첨가물, 포장방식 등

출처 : 러시아 국가표준위원회(www.gosstandart.gov.by)

□ 식품표시제도

- 2013년 7월 1일 관세 동맹 기술규정(Food Products Labeling(TR TS 022/2011))이 발효되어 해당 규정을 통해 라벨링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 국가 표준위원회(Gosstandart of Russia)의 상품표기법에 의거하여 모든 러시아의 수입제품은 반드시 러시아어로 표기해야 함
- 필수 표기사항으로는 제품명, 구성 성분, 제조업체 정보, 유통기한 등이 있음
 - 150mg/L 이상의 카페인 또는 약용 식물 또는 그 추출물을 함유한 무알코올 음료의 경우, 강장 효과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18세 미만, 임산부, 신경과민증· 불면증· 동맥 고혈압 환자들에게는 권장하지 않는다는 주의 문구를 기재해야 함³³⁾

표 3.11 리벨 표기사항

기본 표기사항	추가 표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유형, 제품명 · 제조업체의 법적 주소 · 제품 중량, 성분 함량 · 필수 인증사항 ((TR CU Mark, Gost-R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MO 원료 사용여부 · 식품첨가물 · 포장방식

- 매출액 기준 상위 5개 인스턴트커피 브랜드의 라벨링은 표 3.12와 같음

표 3.12 브랜드별 라벨링

구분	Nescafe	Jacobs	Tchibo Exclusive	Grand	Moskovskaya kofeynyana
라벨링					

자료: 현지조사원

33) USDA (2016.08.31)

4. 위생요건

□ 식품위생 규정은 식품첨가물과 유해물질 관련 규정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

- 식품첨가물의 경우 관세동맹의 기준인증(TP TC 029/2012)의 적용 범위
- 유해물질의 경우 '위생 및 전염병 관리 대상 상품의 위생 및 전염병 관리보건 규정' 중 제 1장 '식품의 위생 및 전염병 관리보건 규정'에 따름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관세동맹 식품첨가물 규정인 'TR TS 029/201225.' 제정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관세동맹은 2012년 'TR TS 029/2012(Customs Union Technical Regulation On Food Additives)'를 제정해 기존에 있었던 3개국 간의 식품첨가물 규정을 통합하였음
- 'TR TS 029/2012'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사용을 허가하고 있는 첨가물은 색소, 보존료, 표백제, 감미료, 향산화제, 방부제 등 약 500개가 있음
- 'TR CU 029/2012' 규정에 따르면 러시아에서는 커피류 제품에 대해 보존제, 안정제, 광택제 등의 식품첨가물 허용 기준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 제조 시 색소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식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볶은 커피, 치커리, 차 엑기스, 수용성 차, 과일 차 및 약물 등의 품목은 생산과정에서 색소 사용이 허용되지 않고 있음

표 3.13 대러시아 커피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식품첨가물

식품목록	위생분류	성분	허용기준
커피, 커피대체물 및 기타 (코코아 이외의)	보존제	Dimethyl dicarbonate (E242)	250mg / L 과정상 잔류물은 허용되지 않음
크리머(커피 크림), 액상커피	안정제, 유화안정제, 충전제, 교화제	Sucroglycerides (E474), sucrose esters of fatty acids (E473)- individually or in combination	5 g / kg
커피콩	광택제	Beeswax white, yellow (E901), k ellilsky wax (E902), shellac (E904)	TD 기준 ³⁴⁾
		Carnauba wax (E903)	200 mg / kg

자료 : 러시아 관세동맹, 'TR TS 029/2012', 2012.12

□ 병원성균, 중금속 기준치 규정

- 러시아의 경우 유해물질에 관하여 정의 및 규제가 규정화되어 있지는 않으며 ‘SanPiN 2.3.2.1078-01’의 식품별 규제에 따라 적용됨
- 러시아의 식품첨가물 규정은 별도의 식품유형 목록이 없지만, 유해물질의 경우 식품 유형에 따른 유해물질 허용기준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있음
 - 커피류의 경우 병원성균, 중금속에 대한 위생규정이 확인됨. 병원성균 규제 항목으로는 대장균,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곰팡이 등이 있으며 중독물질 규제 성분으로는 납, 비소, 카드뮴, 수은, 진균독 등으로 상세한 허용 기준에 대한 정보는 표 3.14와 같음

표 3.14 커피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유해물질

식품목록	위생분류	성분	허용기준
카카오 연유나 가당 농축크림이 들어간 커피	병원성균	총생균수, cfu/m ³ 이하	3.5x10 ⁴ mg/kg
		대장균, 1 g/cm ³ 당	불검출
살모넬라, 25g/cm ³ 당		불검출	
황색포도상구균, 1 g/cm ³ 당		불검출	
커피(커피콩, 갈아내린 커피, 인스턴트커피)		곰팡이, cfu/g 이하	5x10 ² (녹색 커피콩) mg/kg
커피(커피콩, 갈아내린 커피, 인스턴트커피)	중금속	납	1.0 mg/kg
		비소	1.0 mg/kg
		카드뮴	0.05 mg/kg
		수은	0.02 mg/kg
		진균독	0.005 mg/kg

자료 : 러시아 관세동맹, ‘TR TS 029/2012’, 2012.12

□ 러시아 인스턴트커피에 해당하는 위생 규정은 239개로 파악되는 바, 규정에 대한 면밀한 확인 필요

- 커피류 가운데 인스턴트커피 부문만 239개 규정이 존재하며 성분에 따라 반입 금지 조치를 하거나 함량 허용조건이 상이함

34) 해당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제조업체의 기술사양을 따른다는 의미로 제조업체에서 정한 식품첨가물, 향신료, 가공보조제 규정 등의 사용기준을 포함하며, 기술 효과를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양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의미

표 3.15 러시아 인스턴트커피 위생 규정 예시

구분	성분	허용 기준
인스턴트 커피	aluminium sulphate	금지
	ammonium adipates	금지
	ammonium phosphates	가루 식품 : 10 g/kg
	ammonium polyphosphates	가루 식품 : 10 g/kg

[참고 문헌]

■ 참고 자료

1. 「Country Insight Report Russian Federation July 2018」, Dun & Bradstreet, 2018.6.11.
2. 「A new reality for the Russian consumer industry」, McKinsey&Company, 2017.09
3. 「Coffee in Russia」, Euromonitor International, 2017.02
4. 「Cofix Enters Russia With Coffee at Fraction of Starbucks Prices」, Bloomberg, 2016.10.10
5. 「Coffeeshop Company was going to increase the coffee chain in Russia almost 3 times」, Interfax, 2017.05.10
6. 「Russia close to drawing up draft law to raise pension age: PM Medvedev」, Reuters, 2018.04.28
7. 「Food Policy in Russia」, Reference Module in Food Sciences, 2016, 12
8.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 Narrative」, USDA 2016.08.31
9. 「How Russia's Coffee market is poised for impressive growth」, WorldFood Moscow, 2018.3.14.
10. 「도시락·레쓰비·마요네즈...러시아서 '국민식품' 대접받는 K-푸드」, 아시아투데이, 2018.06.21
11. 「연해주는 미래의 식량공급기지...한국기업 잇단 진출」, 매일경제, 2018.06.20
12. 「한러 경제협력 기반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2018. 6. 22
13. 「최근 러시아 경제동향 및 한·러 경제협력 확대 방안」, 한국무역협회, 2018.06
14. 「유라시아경제공동체(EAEC), 2018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관세 코드 적용」,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7.07.27
15. 「최근 러시아 경제동향 및 한·러 경제협력 확대 방안」. 무역협회, 2018.06
16. 「러시아에서는 아메리카노 대신 러시아노?」, 매일경제, 2016.11.21

■ 참고 사이트

1. Official Internet Portal Legal Information (<http://pravo.gov.ru>)
2. Russia Federation Federal State Statistics Service (www.gks.ru)
3.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 (www.fao.org)
4. Euromonitor International (<http://www.portal.euromonitor.com/>)
5. United Nation Population Division (<http://www.un.org/en/development/desa/population/>)
6. International Trade Centre(www.trademap.org)
7. Trade Statistics Service(trass.or.kr)
8. Freedomhouse(freedomhouse.org)
9. Moody's(<https://www.moody.com>)
10.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https://www.export.gov>)
11. 러시아 관세청 홈페이지 (<http://eng.customs.ru>)
12. 산업통상부(<http://www.motie.go.kr>)
13. 제약산업정보포털 (www.khidi.or.kr)
14. 러시아 연방 기술표준청(www.gost.ru)
15. 러시아 연방 보건 위생국(www.rospotrebnadzor.ru)
16. 관세법령정보포털 3.0(unipass.customs.go.kr)
17. 세계 HS 정보시스템(www.customs.go.kr)
18. 무역통계정보시스템(www.stat.kita.net)
19. 러시아 차&커피 협회(www.rusteacoffee.ru/en)
20. 통합무역정보서비스(<http://www.tradenavi.or.kr>)
11.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at.or.kr>)
12. 제약산업정보포털 (www.khidi.or.kr)
13. 러시아 연방 기술표준청(www.gost.ru)
14. 러시아 연방 보건 위생국(www.rospotrebnadzor.ru)
15. 관세법령정보포털 3.0(unipass.customs.go.kr)
16. 세계 HS 정보시스템(www.customs.go.kr)
17. 무역통계정보시스템(www.stat.kita.net)
18. 러시아 차&커피 협회(www.rusteacoffee.ru/en)
19. 통합무역정보서비스(<http://www.tradenavi.or.kr>)
20. 러시아상공회의소(<https://www.rusimpex.ru>)

2018 농식품 해외시장 맞춤형조사

No. 1805-10

품 목 : 인스턴트커피(Instant Coffee)

국 가 : 러시아 연방(Russia Federation)

보고서 기획 및 작성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발 행 일 2018

발 행 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정보부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02-6300-1119 <http://www.kati.net>

자료문의 aT수출정보부

02-6300-1119

- 본 자료는 원본으로 본문 전체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 사이트 www.kati.net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집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자료집의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 복사는 법에 저촉됩니다.